

“원칙과 기본을 준수해 양돈산업 경쟁력을 키우자”



정 동 연 후계농
돈유촌 농장

27세의 젊은 나이에 선진 양돈연수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많은 관심과 다양한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양돈에 관한 각종 질병으로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환경적인 규제 및 사료비 급상승으로 인해 생산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농가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전전공공 하면서 제대로 된 사육 시설에서 양돈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물론 모든 농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농가들이 힘겨운 양돈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학

에서 양돈을 전공하고, 아버지 농장의 후계농으로 일을 한지 어언 4년동안 많이 느꼈기 때문에 양돈 선진국과 한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왜 많이 벌어지는지 의문점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가 이번 네덜란드 PTC+연수에 참여한 동기가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양돈업에 관심을 갖고 관련된 학과 과정을 밟고 부모님과 양돈장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컨설팅도 받아보고 양돈장도 견학도 해보았지만 솔직하게 우리나라의 현실에선 어디에다 표준을 두고 시설개선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 할 때가 많았다.

이번 기회에 선진국의 시스템을 접해보는다면 생산성도 지금보다 훨씬 더 올려 경쟁력 있고 으뜸이 가는 농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심감이 한층 더해졌다. 이제 부터는 네덜란드 ptc교육과 현지에서 있는 양돈장을 견학하면서 내가 느꼈던 바를 서술해볼까 한다.



<그림 1> 네덜란드 PTC+ 양돈 연수단

PTC+의 첫인상

네덜란드 PTC+에 입소하자 다양한 국적의 사



<그림 2> 환기교육을 받는 장면



<그림 3> 네덜란드 양돈농장의 모습

람들이 양돈교육을 받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네덜란드는 첨단 농업과 무역업을 주요 경제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과정 내내 전문적이면서도 기본과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사람이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공기나 환경이 열악한 곳이라면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네덜란드 현지의 강사들과 농장주들은 환경을 제일 강조하고 있었고,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배웠던 이론이 현지 양돈농가에 잘 접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과 원칙을 강조하는 교육

예를 들어 차가운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바닥으로 깔리고 더운 공기는 가볍워 위로 올라간다는 원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흔히 간과하고 있는 사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이 강조되었는데 이런 원리를 감안해 환기 시스템을 농장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충분한 입기와 균형적인 분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배기는 자연적인 현상을 고려해서 굴뚝환기 시스템을 추천했다.

특히 겨울이나 환절기 때 돼지 몸체에서 발생한 열이 보온효과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가스와 동반하여 상승하여 굴뚝뚝으로 배출시킴으로써 돈사 내의 쾌적한 환경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연기분사로 공기 흐름을 관찰을 통해 환기의 원리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등 체험을 통한 교육은 보다 실감나게 다가왔다.

자연적인 공기흐름의 원리 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흔히 행해지고 있는 피트배기 환기, 닥터입기 환기, 벽면배기 방식의 시행착오를 경험한 네덜란드는 이런 기계적인 강제 환기 방식보다는 자연적인 공기흐름을 강조하고 있다. 기계환기 방식에 익숙했던 나에게는 고정관념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 정밀한 쉘의 조절을 통한 환기관리가 가능한 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사육하는 것을 보면서, 철저한 환경관리가 성적향상 뿐만 아니라 생산비 절감요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최대의 환경여건을 조성해주려는 노력과 과학적인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노력의 영향인지 네덜란드는 한국처럼 소모성



<그림 4> 이싱크 교수 분만자돈 처리 실습교육

질환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심각하지 않다고 한다. 이처럼 어느 농장 구분할 것 없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사양관리나 인력면에서도 한국보다 적은 인원으로 다두 사육을 여유롭게 헤쳐나가는 장면은 한편으로는 너무 부러운 모습이었다.

꾸준한 자체육종 개량

네덜란드의 자체 육종개량을 통해 '템포'라는 종돈을 보급하고 있었다. 이 품종은 사료효율이 좋으면서 질병에 강한 유전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체계적이고 균일화된 품종으로 사육되고 있었으며, 현재는 네덜란드의 농가의 80%가 종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네덜란드 전 농가에 보급될 계획이다. 질병에 강하고 우수한 품종을 자체 생산해내는 것은 사회적인 시스템이 갖춰야 가능한 것으로 네덜란드 양돈산업의 기본 바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한경쟁시대의 양돈산업

유럽의 양돈선진국인 네덜란드 양돈농가들 역시 생산성에서 밀리고 생산비를 최소화하지 않으면 도

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과도한 경쟁과 적은 이윤 때문에 농장경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이 말에 솔직히 나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렇듯 세계수준의 양돈기술력을 보유하고 최고 성적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의 양돈농가의 불안감이 우리나라의 양돈농가와 다르지 않다는 점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역시 철저한 개선과 사양관리가 철저히 이행된다면 이들 양돈선진국과의 대결에서 승산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럽연합(EU)의 양돈산업은 이미 포화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양돈산업은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유럽과 FTA협정을 맺으면 분명히 한국 양돈 산업에 타격 받을 것이지만 이 보다 먼저 우리나라의 양돈 산업 구조의 전반적인 개선이 없다면 미래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생각이은 연수내내 내 머리속에 있던 생각이였다.

마치며

마지막으로 네덜란드PTC+교육과정을 짧은 시일 동안 환기에 대한 기본 원리와 시스템화 된 관리 체계를 보고 듣고 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었고 나름대로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모든 양돈농가가 네덜란드의 농장시설처럼 개축될 수는 없겠지만 환기 방식이나 시스템은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계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많은 양돈농가들이 충실한 기본과 원칙을 통한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면 결코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새롭게 배운 신지식을 통해 건강한 양돈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될 것이라는 신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양돈**